

오피니언

다산포럼

허욱



'바다이야기'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바다의 성난 파도에 여러 명이 다쳐야만 이야기가 끝을 맺을 모양이다. 그런데 사행성 게임업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대규모 단속이 강화되자 가장 집요로 잠적하거나 음식점, 인테리어 업체 등에서 위장 영업을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 성인게임업소는 문을 닫으면서 '더 높은 배당률로 곧 다시 찾아 뵈겠다'는 안내문을 붙였다고 하니 사람들의 도박욕구를 잡는 데 경찰의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바 등 약 16조에 이르는 음성도박산업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도박산업 규모는 약 50조원 수준이라고 추정하였다. 또한 도박산업의 연간 이용객은 7,775만명으로 추정하였다.

도박 부추기는 사회

게임 몰입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년들이 더 문제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청소년 컴퓨터사용 실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하루 평균 게임 시간은 386분(6.43시간)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약 90%가 게임중독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게임은 사행성과 무관할까?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못하다. 이번엔 경품용 상품권이 문제가 되었듯이 온라인게임에는 '아이템'이라는 '유사 디지털 유가증권'이 있다. 한국 온라인게임 산업의 폭발적 증가 이번에는 '아이템 거래'라는 그림자가 일정한, 비판적 시각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다. 국

내 아이템거래 시장 규모는 연간 총 8천~9천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게임에 중독된 일부에 해당하지만 "못하는 공부 대신에 게임을 해서 번 아이템을 팔아서 먹고 살겠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른이건 청소년이건 게임에 계속 빠지도록 유혹하는 '몰단장'이 있는 셈이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크게 일과 공부 등의 생활활동과 식사, 수면과 같은 유지활동, 그리고 여가활동으로 삼등분할 수 있다. 사람들이 오락 또는 게임을 하는 이유

고 승부를 다루는 일로 정의한다. 도박은 쉽게 말해 내기를 걸고 게임을 한다는 뜻이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내기화투뿐 아니라 내기장기나 바둑, 내기축구, 내기당구, 내기골프 한 번 안 한 사람이 있을까? '내기'는 게임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겼을 때는 승리의 기쁨을 더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다산의 글 중에도 '술내기 활쏘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느낀 감흥을 노래한 시가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내기게임이 재미와 즐거움의 수준을 넘어 도박과 중독의 수준에 이르러 되면 그것은 자기통제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그 수준과 경계를 지킬 자신이 없으면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상성의 발달로 여가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남은 시간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익히지 못할 경우 여가는 자기성장과 행복의 기회가 아닌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도박에 빠진 사회가 되느냐, 아니면 성숙한 문화사회가 되느냐의 차이는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삶의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일의 즐거움을 배우고, 여가시간에 우리 자신의 의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LIBRA컨설팅 대표·다산연구소 제6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상의, '개혁 통한 정상화' 여론 외면 말라

지난 3월 실시된 회장선거에 대한 불법 논란으로 5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는 광주상공회의소 정상화를 위해 지역시민단체들이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4일 '광주상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가진 것이다. 광주상의의 지역기업인들이 그동안 상의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파행 국면이 장기화되자 시민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실시된 회장선거에 대한 불법 논란으로 5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는 광주상공회의소 정상화를 위해 지역시민단체들이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4일 '광주상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가진 것이다. 광주상의의 지역기업인들이 그동안 상의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파행 국면이 장기화되자 시민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광주상의가 안전한 운영과 매너리즘으로 일관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개혁을 통해 지역상공정책을 주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등 지역 기업의 구심체로서의 능력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광주상의가 안전한 운영과 매너리즘으로 일관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개혁을 통해 지역상공정책을 주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등 지역 기업의 구심체로서의 능력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동안 광주상의가 외부의 간섭에 의하지 않고 상공인들이 머리를 맞대 개혁안을 도출해 정상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상의의 주체인 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의는 물론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상공인들은 이번 사태를 마치 상의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소송 당사자들만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해 왔다. 지역 상공인들의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로는 광주상의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있을 선거무효, 본안소송의 법원 판결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발전노조 파업 철회...노동계 자성 계기로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가 4일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파업 하루도 못돼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이다. '전력대란'으로 이어질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엄청난 타격을 감안하면 다행스런 일이다.

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기업은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해 기업과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며 민심을 자극해 왔다. 한국노총은 지난날 말 정부와의 갈등을 이유로 부산에서 열렸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철수,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노동계가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과격투쟁을 일삼는 것은 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건 발전 5사 통합, 임금개이드리인 철회 및 제도개선, 해고자 복직 등은 무리한 요구였다. 30년 근속 발전소 교대 근무자의 연봉이 9천만원에 달한다는 '귀족노조'가 이런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더구나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칠 충격은 아랑곳없이 국가의 핵심동력인 전력 생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행위인가.

노동계는 최근의 노동운동이 노동계에 무슨 도움이 되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과격한 노동운동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노동계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과격 투쟁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펴길 바란다.

노동계는 이번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사태를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노동운동은 국민의 성원이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노동운동은 국민과 거리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이다.

無等鼓

'위로 부귀한 집안에서부터 아래로 천민에 이르기까지 탐욕하지 않음이 없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자와 경역에 출입하는 자들도 모두 풍속을 이루어 삼심이 투전을 하지 않으면 행세할 수 없다는 말까지 할 정도다. 속습의 쉽게 물들고 이해하기 어려움이여, 그 폐단은 반드시 도적이 되고 난 뒤에야 그칠 것이다'

면 그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고 한탕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조선시대 윤기의 '가금'에 나오는 대목이다.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도박에 빠져 있는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조선시대관 '바다이야기'인 셈이다.

요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으로 시끄럽다. 시내 중심가, 주택가, 농어촌 할 것 없이 즐비하게 늘어난 사행성 오락장은 손발이 얼음 정도가 돼 버렸다. 2004년 12월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과하고,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인준제가 도입되면서 4천여

원 규모에 머물던 상품권 시장이 30조원으로 급팽창한 것이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는 물론이고 문광부를 비롯한 어느 정부기관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도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윤기가 예언했듯 바다이야기 도박 폐단은 도적이 되니며 유흥게임을 했는데 웃, 신발 심지어 모자까지 전당포에 맡겼다. 도박을 끊겠다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면서도 돌아서면 그뿐이었다고 하니 중독 증세가 무척이나 심했던 것 같다.

원 규모에 머물던 상품권 시장이 30조원으로 급팽창한 것이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는 물론이고 문광부를 비롯한 어느 정부기관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도 밝

하고 있다. 조선시대 윤기가 예언했듯 바다이야기 도박 폐단은 도적이 되니며 유흥게임을 했는데 웃, 신발 심지어 모자까지 전당포에 맡겼다. 도박을 끊겠다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면서도 돌아서면 그뿐이었다고 하니 중독 증세가 무척이나 심했던 것 같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도박이 유행하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양희승



우리에게 처절하고 뜨거웠던 5월 항쟁이 벌써 한 세대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정치권 속에서 가시적으로 느낄 정도로 정착되어 왔다. 또한 남북통일의 염원도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하여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게 했다. 5월 단체들도 갈등과 반목을 넘어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의 3단체로 정리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5월 정신계승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4 번째가 넘는 시간 속에 부단한 노력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다. 그럼으로써 작게는 우리 자체적으로 5·18 항쟁의 발포명령자를 색출할 수 있고, 5월 항쟁의 진실규명에도 한 발짝 나아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5·18 항쟁 당사자가 5·18 민주유공자로 지정됨으로써 타국가 유공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5월을 우려 먹지 말라고 한다. 한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5·18 민주유공자들은 아직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5월 항쟁의 후유증으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1천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기타 등급자로 분류되어 유공자로

오월을 생각하며

아직도 타지역에서는 5·18 민중항쟁에 대해 폭도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정부가 5·18 민중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제정까지 하였으면 전국적인 기념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사진전이나 영상전 등으로 홍보를 하여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지역적인 항쟁이 아니라 전 국민이 열망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다'라고 인식시켜야 한다. 5월 항쟁 정신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자주적, 평화적인 통일로 나서자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시절에 적극적으로 추진된 통일운동이 작금에 와서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한 작전통제권 인수문제는 1980년 한미연합사 승인 하에 광주에 진압부대로 투입된 20사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드시 국군통수권자에게 인수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작게는 우리 자체적으로 5·18 항쟁의 발포명령자를 색출할 수 있고, 5월 항쟁의 진실규명에도 한 발짝 나아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5·18 항쟁 당사자가 5·18 민주유공자로 지정됨으로써 타국가 유공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5월을 우려 먹지 말라고 한다. 한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5·18 민주유공자들은 아직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5월 항쟁의 후유증으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1천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기타 등급자로 분류되어 유공자로

노인들도 취미생활 공간 필요하다

60대 후반 진정 어머니가 무도장에 춤을 배우러 다니는 것을 알게 됐다. 워낙 재미 있어 하길래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가끔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주게 됐다. 어머니를 통해 춤 배우러 다니는 것을 머리가 알게 되어 외출이 불편해진 할아버지, 운동이 되기 때문인지 삶이 빠졌다고 좋아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남들이

알까봐 쉬쉬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무도장 출입이라는 사회적 눈길도 부담스러워 하는 노인들을 위해 공개 장소를 제공했으면 한다. 공원이나 체육관을 개방하고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면 노인들 건강 유지에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노인들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유병숙·광주시 광산구 박홍동



아기 오랑우탄

지난해 겨울 서울대공원 견학을 갔다가 동그란 눈을 굴리는 아기 오랑우탄 '보미'를 만났다. 보미는 지난 2004년 제충미달로 태어났다. 어미가 젖마저 나오지 않아 사육사가 분유를 먹이며 키웠다. 당시 사육사는 보미 영양제·분유 등을 사 먹이며 정성을 다해 키웠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사육사 품에 뱃속 안기는 모습이 귀엽다. 원숭이 새끼들, 특히 유인원의 새끼들은 모습이 비슷해서인지 사람이 키우주면 잘도 크리니와 젖 주는 이를 단박에 자기 부모로 받아들인다. 반면 같은 원숭이라도 계통상 유연관계가 먼 다른 원숭이들은, 어느 시기에 이르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 인공포유를 하는 건, 어머니 새끼에게 비극이지만 관광객이나 사육사들에게는 모처럼 동물들을 아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이기도 하다. 사육사들에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이들 동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쌓게 되는



게기가 된다. '스킨십' 만큼 서로를 잘 알게 하는 게 없는 것이다. 멀리서 견학 왔다고 대리모가 된 남자 사육사가 드링크 음료를 내밀었더니, 뱃속 받아먹는다. 얼마나 예쁘게 보였는 줄 모른다. 마치 내 자식인 것 처럼 말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잠깐 정차시 '비상등' 꼭 켜야

택시가 손님 승·하차할 때나 학교·학원 앞에서 아이를 내려줄 경우, 물건을 사려고 잠시 차를 멈출 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는 것이 운전자들의 기본 상식이다. 도로교통법에도 나와 있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하기 일쑤다. 고작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이 전부

다. 뒤따르는 차는 회전하는 줄로만 알고 가다 접촉 사고를 내기도 한다. 자칫 신호등을 무시하다 크게는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로 이어진다. 운전할 때 다른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고가 나지 않는 길이다. ▲김재준·광주시 동구 계림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